



독서의 계절 가을, ACC로 떠나는 북투어

27~29일 제5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

아시아문학상 시상·컨퍼런스 진행 북버스킹·북마켓 도서 체험행사도 작가로서 철학 차인표·공씨 북토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먼저 오는 29일까지 ACC 아시아문화박물관에서 고민·성격 유형별 도서 추천 서비스인 '책 GPT'와 기부 도서 수익금으로 지역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책 기부 캠페인'이 진행된다. 이어 오는 27~29일에는 ACC 일대에서 '제5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 '책 읽는 ACC', '북토크' 등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ACC의 '독서의 달'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제5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

올해 5회째를 맞은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은 '아시아의 도시, 인간과 비인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인간과 비인간(AI, 유령 등)이 공존하는 아시아 도시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번 문학축제에는 싱가포르, 팔레스타인, 몽골국,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작가들이 참여해 아시아의 가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한다.

오는 27일 오전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아시아와 한국 작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문학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이어 수상자인 아다니아 쉬블리의 기조강연이 펼쳐진다. 팔레스타인 여성작가인 아다니아 쉬블리는 문학을 통해 전쟁과 평화를 성찰할 수 있는 서사의 힘을 보여준다.

같은 날 오후부터 진행되는 페스티벌 1세션은 '도시와 문명: 인간과 비인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인간과 비인간이 공존하는 도시의 변화상을 탐구한다.

본 세션에는 일본 소설가 호시노 도모유키, 대만 최초로 지난 2018년 맨부커상 후보에 오른 소설가 우밍이, 사우디아라비아 작가 야설 바흐자, 소설가 장류진, 소설가 안희연, 시인 예소연, 평론가 이소 등이 참여한다.

2세션은 '오래된 미래: 전통과 현대의 이야기' 주제로 지난 2016년 맨부커상 수상후보에 오른 인도네시아 작가 예카 쿠르니완, 베트남 작가 구엔 트르웁 꾸이, 몽골 작가 루브산돌즈울찌독스와 더불어 한국의 시인 이소연, 김지은 그리고 평론가 고명철이 함께 한다.

다음날인 오는 28일 오후에 열리는 3세션은 '세계의 위기: 공존과 상생의 이야기'로, 5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자 아다니아 쉬블리, 싱가포르 작

가 스테파니 독뫼트, 우즈베키스탄 작가 바크히티 올 라솔오브 그리고 한국의 소설가 이서수, 소설가 이지, 시인 김현, 소설가 심윤경이 ACC를 방문한다. 이번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은 이날 '2024 광주 아시아작가 선언문'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ACC는 이번 '아시아문학페스티벌' 행사 기간 동안 일반인들의 아시아 문학에 대한 접근성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유라시아 그림책 전시 및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인증사진과 후기를 남긴 독자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북버스킹·북마켓 등 도서 체험행사 다채

'서(書)로 만난 사이'라는 주제로 준비한 '책 읽는 ACC'가 오는 28~29일까지 ACC 일대에서 진행된다.

먼저 문학작품을 음악 공연으로 풀어가는 '북버스킹'이 문화정보원 북라운지에서 펼쳐진다. 오는 28일에는 최근 다양한 방송을 통해 음악성을 재조명받은 '밴드 재주소년'이 장류진 작가의 소설 '일의 기쁨과 슬픔'을 낭독하고, 책 내용의 정서와 어울리는 곡을 부른다. 이어 오는 29일에는 '오른 시인'이 시집 '없음의 대명사'를 직접 낭독하고, '싱어송라이터 최고온'이 어쿠스틱 기타 연주로 공연을 이끈다.

문화창조원 지하 2층 북도에서는 전국 독립서점 및 출판사 40개 사가 참여하는 '북마켓'이 열리며 야외에서는 '플리마켓'을 통해 독자 관련 상품 및 공예품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행사 기간 동안 ACC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빙고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진행한다. 빙고를 완성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차인표·공씨 토크지기 기대

오는 28~29일 ACC 극장3에서는 북토크 행사가 열린다. 오는 28일에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의 저자이자 배우인 차인표 작가를, 29일에는 '우리 오늘도 살아 있네?'의 저자 공씨 작가의 북토크를 만나볼 수 있다.

차인표 작가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 옥스퍼드대학교 교수가 되기까지 배우가 아닌 소설가로서의 철학과 글 쓰는 작업에 대해 강연한다.

공씨 작가는 내적 성장과 치유, 자존감, 사회문제 주제로 작업하는 '케이-인스타툰'의 대표 작가로서 고민과 목표, 작업노하우를 들려준다. ACC는 공씨 작가의 도서 '우리 오늘도 살아 있네'와 연계해 'ACC 도서관 미니전시: 공씨의 글 읽기'를 오는 29일까지 ACC 도서관 이벤트홀에서 전시한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화가 '폴 세잔'의 우정과 예술이 담긴 영화

'2024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25일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조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 영화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을 감상하고 분석의 시간을 갖는다.

'2024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6회차인 이번 강의에서 프랑스의 화가 '폴 세잔'을 다룬 영화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을 함께 보고, 상영 후에는 폴 세잔의 그림 20여 점에 대한 설명도 접할 수 있다.

사과 한 알로 회화 역사에 혁명을 일으켰던 위대한 화가 폴 세잔. 그를 두고 파블로 피카소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 했고, 폴 고갱은 '세잔의 그림은 내가 가진 소중한 보물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폴 세잔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평생 그림에 헌신했지만 당대의 마네나 모네에 비해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영화는 화가인 폴 세잔과 소설가인 에밀 졸라의 이야기를 다룬다. 다니엘르 톰슨 감독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가미해 연출했다. 두 예술가는 어릴 적 친구로 말년에 사이가 틀어졌지만, 그들의 우정은 두 예술가를 탄생시킨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영화는 폴 세잔과 에밀 졸라의 명성 뒤에 숨겨져 있던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준다.



영화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 스틸컷.

'하정웅미술관' 예술영화 강의를 진행하는 영화평론가 조대영은 지난 수년간 하정웅미술관 영화상영회를 도맡아 왔으며, 광주를 중심으로 영화 상영회 및 감상회를 활발하게 이끌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원작 소설과 영화를 비교해서 읽고 보는 모임인 '20세기소설영화독본'을 16년째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동구 인문학당'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약하고 있으며, 지은 저서로는 영화평을 묶어낸 '영화, 룩다'가 있다.

다음 상영회는 파블로 피카소(10월 30일)가 등장하는 영화 소개를 끝으로 올해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하정웅 미술관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별도의 예약 없이 선착순 방문제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2시 농성동에 위치한 하정웅미술관에서 진행된다.

도선인 기자

광주시립발레단 희극발레 '코펠리아' 공연

내달 18~19일 광주에당 대극장 민속무용 안무·마임연기 등 눈길

광주시립발레단은 희극발레 대표작 '코펠리아' 전막 공연을 오는 10월 18~19일 총 3회 걸쳐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19세기 낭만발레 걸작 중 희극발레의 대표작인 '코펠리아'는 연금술을 즐기는 괴짜과학자 '코펠리우스'가 만든 인형인 '코펠리아'를 마을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일어나는 유쾌한 이야기이다.

특히 낭만발레의 마지막 작품으로 아가

자기한 프랑스 발레의 묘미를 느낄 수 있으며, 뛰어난 음악과 다채로운 춤, 화려한 의상과 장치, 연극적인 이야기 전개, 19세기의 유행했던 자동인형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로망을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은 폴란드 민속무용인 '마주르카'와 헝가리 민속무용인 '차르다쉬'를 역사상 최초로 발레에 등장시킨 작품으로 의미가 깊다. 각국의 민속무용을 발레에 접목하는 것에 시초가 됐다.

이번 공연은 무용수에게 고도의 연기력을 요구하는 작품으로 연극적 요소가 뛰어난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코펠리우스 등 등장인물들의 마임 장면은 관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한다. 박승유 양주

시립교향악단 지휘자와 카메라타전남의 오케스트라도 함께 공연에 나선다.

안무 및 총연출을 맡은 박경숙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은 "광주시립발레단 결성 27년 만에 돌아온 '코펠리아'를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무대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춤의 향연, 유쾌한 줄거리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공연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7시 30분, 19일 오후 3시·7시 30분 세 차례 무대에 올린다. 티켓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만원이다.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선예매는 오는 23일부터, 일반예매 24일부터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풀과 꽃... 드로잉 피크닉 떠나요"

25~26일 강좌 '자연관찰일기' 광주문화재단 작은도서관

광주문화재단은 자연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작은도서관 강좌 프로그램을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2회에 걸쳐 진행한다.

1부 강좌 '자연관찰일기 I'은 강의형으로 풀과 꽃 등을 관찰하며 기록해 보는 활동을 한다. 2부 '자연관찰일기 II'는 현장 체험형으로 야외 드로잉을 그려본다. 강좌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강사는 김옥진 마음놀이터 대표가 맡는다. 김 대표는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한 창의예술교육랩 '다른생명체의 시선'에서 랩장을 맡아 랩원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교구 '자연관찰 키트'를 개발한 적이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광주시민(성인) 선착순 15명까지 문화예술작은도서관 전화(062-670-7968)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수강생 전원에게는 자연관찰 키트(드로잉에 필요한 도구, 관찰노트 등)가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문화예술작은도서관 다음 강좌는 11월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은 오는 25~26일 자연을 주제로 한 강좌를 진행한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12일과 14일 오전 10시 예정돼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키오스크 사용방법에 대한 내용이 전개된다.

도선인 기자